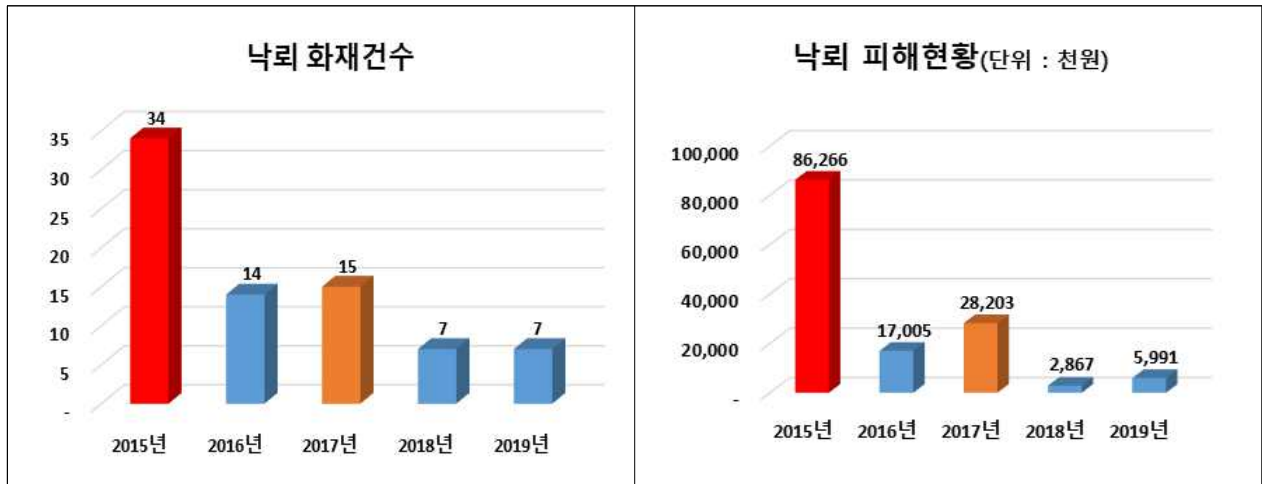


7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= 장마철 낙뢰 화재 안전 주의보 =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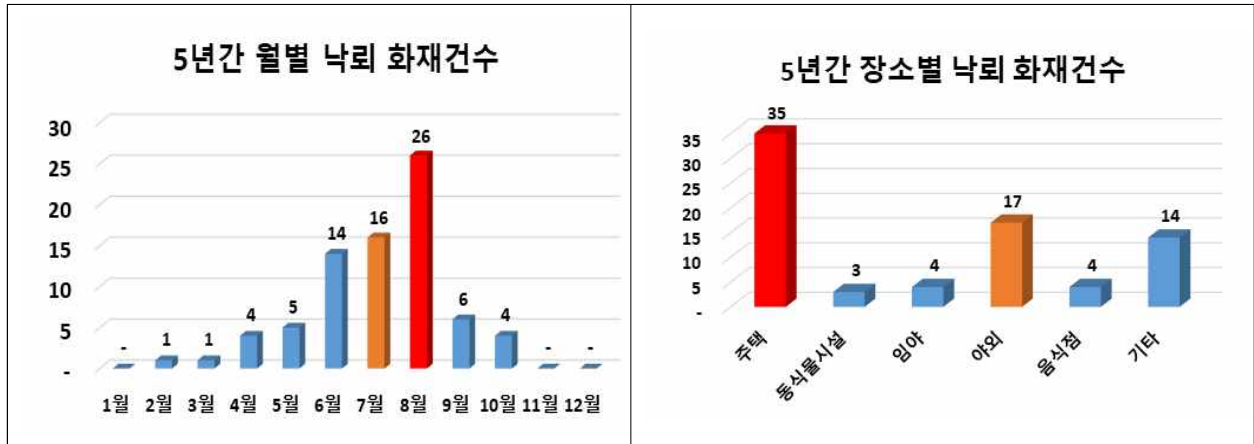
□ 낙뢰 화재현황(최근 5년간)



- 최근 5년('15 ~ '19년)간 발생한 낙뢰 화재는 총 77건, 약 140,332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'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름철(6월~8월)에 56건(73%)이 발생하여 여름철 낙뢰 화재예방이 각별히 요구된다.
- 월별로는 8월 26건(34%), 7월 16건(21%), 6월 14건(18%), 9월 6건(8%), 5월 5건(5%), 4월·10월 각 4건(5%), 2월·3월 각 1건(1%) 순으로 분석 되었다.

《월별 화재발생 현황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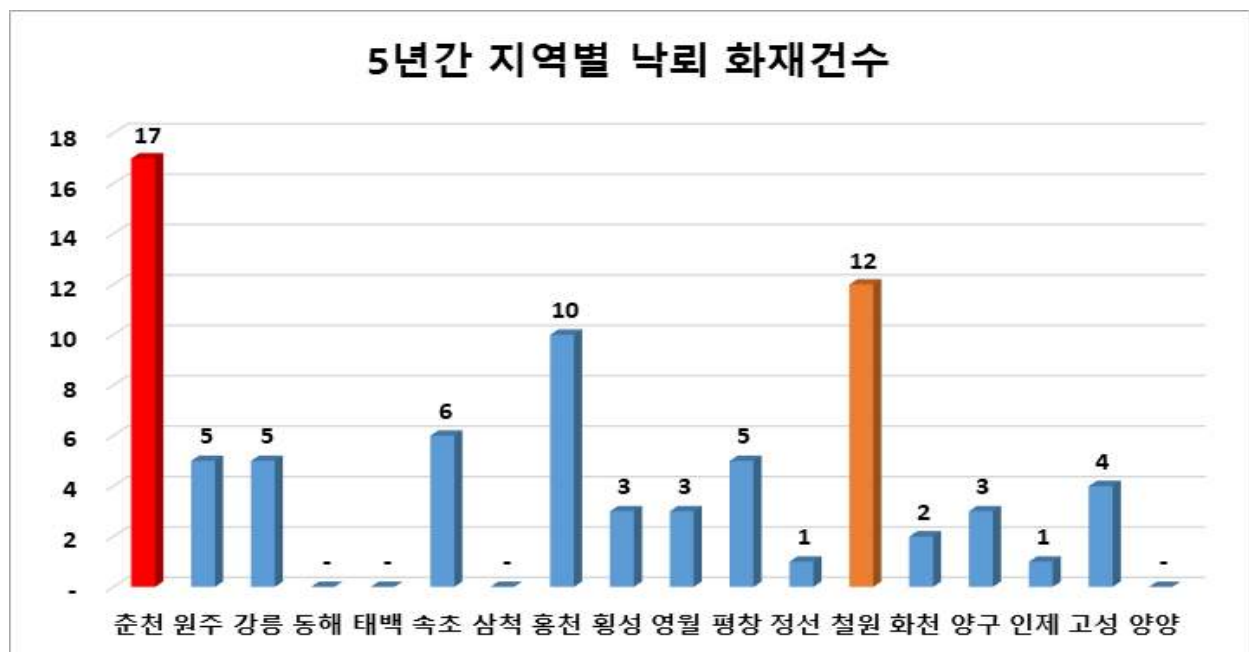
구분	계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재산피해
계	77	1	1	4	5	14	16	26	6	4	140,332
2015년	34	-	-	3	-	7	4	16	1	3	86,266
2016년	14	1	-	-	-	2	6	4	1	-	17,005
2017년	15	-	-	-	1	5	3	3	3	-	28,203
2018년	7	-	-	-	3	-	1	2	-	1	2,867
2019년	7	-	1	1	1	-	2	1	1	-	5,991



- 낙뢰 화재발생 주요장소로 주택이 35건(45%)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외 시설물 17건(22%) 순이며, 시간대별 분석하면 오후(15~18시) 시간대가 29건(38%)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.
- 또한 지역별로는 춘천시 17건(22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철원 12건(16%), 홍천 10건(13%), 속초 6건(8%), 원주·강릉·평창 각각 5건(6%), 고성 4건(5%), 횡성·영월·양구 각각 3건(4%), 화천 2건(3%), 정선·인제 각각 1건(1%) 순으로 발생하였다.

《지역별 화재발생 현황》

계	춘천	원주	강릉	속초	홍천	횡성	영월	평창	정선	철원	화천	양구	인제	고성
77	17	5	5	6	10	3	3	5	1	12	2	3	1	4



□ 낙뢰가 예상될 때

- 야외에서 일하거나 등산, 골프 등을 할 경우에는 낙뢰에 대한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한다.
- 건물 안, 자동차 안,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
- 낚시대,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.
- 낙뢰가 예상될 때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.

□ 낙뢰가 칠 때 안전한 행동요령**산행 중 대처요령**

-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정상부에서는 낙뢰 발생 시 신속히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.
-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(약 10km 이내에 뇌전 발생)
- 정상부 암벽 위에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키 큰 나무 밑은 낙뢰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피한다.
-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, 몸에서 떨어뜨리도록 한다.
- 야영 중일 때는 침낭이나 이불을 깔고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좋다.
-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최소 5m 이상 떨어지되,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아야 합니다.
-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은 피하도록 한다.
-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린다.
-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,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대피한다.

야외에서 대처요령

- 평지에서 낙뢰가 칠 때에는 몸을 가능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.
- 평지에 있는 나무나 키 큰 나무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한다.
-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(약 10km 이내에 뇌전 발생)
- 농촌에서 삽, 괭이 등 농기구는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낮추도록 한다.
-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하다.
- 낚시꾼은 낚시대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낮추도록 한다.

가정에서 대처요령

- TV, 라디오 등을 통하여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.
- 집에 낙뢰가 치면 TV 안테나 및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-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,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 두고,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.
- 창문을 모두 닫고 감전 우려가 있는 샤워, 설거지 등은 금해야 합니다.
- 금속성 건축자재 등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.
-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□ 낙뢰 사고 응급처치요령

- 낙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.
- 구조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의 여부를 살핀다.
- 의식, 호흡, 맥박 확인 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구급상황관리 센터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한다.
-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시킨다.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한다.
-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이상이 없어보여도,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.